주간농업·농촌동향	외신동향

2010.03.22 미래정책연구실

▢ 미국, 농업 대기업 규제 강화 움직임

1) USDA, DOJ 보도자료(2010.03.12) 주요 내용

○ 미국 농무부(USDA) 및 법무부(DOJ)는 지난 3.12일 아이오와주 앤키니에서 합동 청문회를 개최함. 청문회는 모두 5차례가 기획되어 있으며, 이번 청문회는 그 첫 번째로써 농업 대기업의 종자 독과점 문제에 대해 논의함.

- 개막 연설에서 Holder 법무장관은 반독점법 집행을 언급하였으며, Vilsack 농무부 장관은 농업분야 독과점의 폐해에 대해 설명함.

○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농업 대기업의 시장구조 왜곡과 가격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음.

- 몬산토, 듀폰, 아처 데니얼스 미들랜드 및 타이슨 푸드 등의 농업 대기업은 쇠고기와 바이오테크 종자 및 가금류 등의 수급에 관여하여 가격 결정에 영향을 끼쳐왔음.

○ 청문회에 참석한 몬산토의 대변인은 유전자 변형 종자를 선택할지 여부는 농민에게 달려있다고 주장하였으나, 법무부 반독점국의 Varney 대변인은 유전자 변형 종자가 대기업의 독점을 유지하고 연장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발언함.

▢ 미국, 농가 경제 위축

1) REUTERS (2010.03.15) 주요 내용

○ 3.15일 시카고에서 개최된 로이터 식량 및 농업 회담에서 PayNet사(社) 대변인은 2009년 미국 농가의 자산 차압 비율이 2005년 대비 51% 증가하였으며, 대출 연체율 역시 1.54% 증가하였다고 발표함.

- 콘벨트 지역(아이오와, 일리노이, 미주리, 오하이우, 인디애나, 미네소타, 위스콘신) 대출 상환 연체율은 2008년 3분기 0.5%에서 2009년 4분기 0.75%로 상승함.

- 중부 대평원 지역(켄사스, 네브라스카, 오클라호마, 텍사스)의 경우, 2009년 대출 연체율이 2006년 대비 1% 증가한 1.37%로 나타남.